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사역을 통한 관계적 전도와 교회성장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메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신승재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Seungjae Shin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A STUDY ON RELATIONAL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THROUGH HOUSE CHURCH AND HAPPY DAY MINISTRY**

Seungjae Shin

Woori Church, Iksan, Korea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revival model combining 'House Church' and the 'Happy Day Evangelism System' to overcome the crises of negative growth and loss of community in modern Korean churches.

Based on the New Testament model, the House Church empowers laypeople as active ministers rather than religious consumers. At Iksan Uri Church, delegating pastoral authority to lay leaders and implementing a systematic five-step "Life Study" discipleship program—comprising Assurance, Life, New, Godliness, and Experiencing God—accelerated spiritual growth.

Complementing this, the 'Happy Day Evangelism System' mobilizes the entire congregation through an eight-week process focused on relationship-based strategies. This system effectively lowers the psychological barriers for non-believers through scientific step-by-step contact and service-oriented outreach, supported by intense spiritual energy from relay fasting and early morning prayers.

The synergy of these systems provides a virtuous cycle where new families introduced through 'Happy Day' settle into the familial atmosphere of House Churches. This integration secures both the depth of relationships and the breadth of ministry. Furthermore, empowering lay leadership has enhanced the church's health and dynamism.

In conclusion, the case of Iksan Uri Church demonstrates tha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val is achievable when clergy and laity collaborate to embody the biblical prototype. This integrated model offers a sustainable strategy for Korean churches to restore their essential vitality and transform the world in the post-pandemic era.

국문초록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사역을 통한 관계적 전도와 교회성장 연구

신승재

우리교회, 익산, 대한민국

본 연구는 현대 한국 교회가 직면한 마이너스 성장과 공동체성 상실이라는 이중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의 통합 부흥 모델을 제시하고 그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약 성경의 원형적 교회 모습을 지향하는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다. 익산우리교회는 이러한 가정교회 정신을 바탕으로 평신도 리더인 목자와 목녀에게 실질적인 목양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성도들을 단순한 ‘종교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사역자’로 변화시켰다. 특히 목장 모임에서의 깊은 삶의 나눔과 ‘확신, 생명, 새로운, 경건, 하나님을 경험으로 이어지는 5단계 삶 공부 양육 체계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도입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관계 중심의 맞춤형 전도 전략으로, 8주간의 치밀한 사역 프로세스를 통해 전 성도를 전도 동력화하였다. 이 시스템은 과학적인 단계별 접촉 전략과 감동 중심의 섬김을 통해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심리적 문턱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으며, 릴레이 금식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공동체 내부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두 시스템의 통합적 시너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의 결합은 ‘관계의 깊이’와 ‘사역의 넓이’를 동시에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메커니즘을 완성하였다. 해피데이를 통해 유입된 새 가족이 가정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호받으며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는 새 가족 정착률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왔다. 둘째, 사역의 위임을 통한 평신도 리더십의 강화는 교회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현재 11개의 목장을 운영 중인 익산우리교회는 지역사회 섬김과 해외 선교사 후원을 목장 단위로 실천하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양육과 집중적인 전도 훈련의 결합은 성도들의 영적 야성을 회복시켰으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전도 문화가 정착되는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익산우리교회의 사례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유기적으로 동역하며 성경적 원형 교회를 구현할 때, 현대 교회가 직면한 침체 문제를 극복하고 질적·양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실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모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목회 전략으로서 중요한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 목차

감사의 글 .....	xi
<b>I. 서론 .....</b>	<b>1</b>
A. 가정교회 사역의 필요성 .....	1
B. 해피데이의 필요성 .....	4
C. 연구 내용과 방법 .....	5
<b>II.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b>	<b>6</b>
A. 가정교회 사역 .....	6
1. 성경적 가정교회 .....	6
2. 모범적 가정교회 .....	11
3. 가정교회의 모델: 휴스턴 교회 .....	22
4. 가정교회를 성공시키는 리더십 .....	25
5. 익산우리교회 가정교회 사역과 프로그램 .....	30
B. 해피데이 사역 .....	42
1. 해피데이 전도란? .....	42
2. 해피데이 전도의 원리 .....	44
3. 해피데이 전도 진행방법 .....	45
4. 익산우리교회 해피데이 적용과 프로그램 .....	46
<b>III. 가정교회와 교회성장 .....</b>	<b>59</b>
A.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 성장과 변화 .....	59
B.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과 변화 .....	61
C.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사역 간 상호보완성 및 효과 .....	65

IV. 결론 .....	67
A. 연구 요약 .....	67
B. 연구 결론 .....	69
참고문헌 .....	71
부록 .....	74

## 표목차

<표 2-1> 해피데이 전도단계.....	46
<표 2-2> 해피데이 릴레이 금식 기도표.....	53
<표 2-3> 해피데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표.....	54
<표 4> 해피데이 진행위원 임명식 및 선포식.....	58
<표 5> 해피데이 진행위원 모임표.....	59
<표 6> 해피데이 성경읽기표.....	60
<표 7> 해피데이 진행사항.....	60

## 그림목차

<그림 2-1> 목장모임 모습.....	34
<그림 2-2> 가정교회 주보.....	36
<그림 2-3> 매월 목장모임 모임.....	37
<그림 2-4> 목장별 새벽기도회.....	38
<그림 2-5> 확신의 삶.....	40
<그림 2-6> 생명의 삶.....	41
<그림 2-7> 새로운 삶.....	41
<그림 2-8> 경건의 삶.....	42
<그림 2-9>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3
<그림 2-10> 해피데이 진행위원 신청서.....	49
<그림 2-11> 해피데이 걱정된 사람들.....	50
<그림 2-12> 진행위원 임무 매트릭스.....	51
<그림 2-13> 해피데이 전도시스템 선언문.....	51
<그림 2-14> 해피데이 금주 진행사항.....	52
<그림 2-15> 해피데이 진행위원 임명장.....	55
<그림 2-16> 해피데이 전도왕.....	56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본 논문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필자의 삶과 사역,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온 은혜의 기록이다. 부족한 자를 세워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고민하게 하시고, 이 작은 기록이 누군가에게 소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가장 먼저,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이 모델의 실증적 증인이 되어준 익산우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척박한 땅에 가정교회의 씨앗을 심고 해피데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헌신했던 장로들과 권사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양의 자리를 지켜낸 목자, 목녀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에 이 논문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의 헌신은 필자에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가장 큰 교과서였다.

또한, 부족한 제자가 학문의 길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준 교수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문적 깊이 뿐만 아니라 목회적 심장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그 가르침을 평생의 자산으로 삼고자 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인 아내 백은숙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그녀의 헌신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이 여정을 완주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두 아들, 하준과 다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버지의 분주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며 묵묵히 응원해 준 아들들이 있었기에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낳아주고 기도로 뒷바라지해 준 부모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준 모든 동료들과 지인에게 이 기쁨을 돌린다. 본 논문이 서재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기록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족함은 필자의 몫이며, 이 모든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

2026년 5월

신 승 재

## I. 서론

### A. 가정교회 사역의 필요성

이 시대는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성도들의 삶은 개인주의가 심각하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미 대형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대형교회도 목회자의 권위와 경직성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약화, 청년층의 이탈, 교회 안에 공동체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이 시대적 위기의 상황에 이 시대에 가정교회는 좋은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먼저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교회의 본질과 친밀한 공동체, 강력한 제자훈련에 대한 장점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 보겠다.

첫째, 현대인들은 관계성에 목말라 있다.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외로운 군중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성도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와 삶의 나눔이 있다는 것이다. “나눔의 시간은 목장 모임의 핵심이다. 이 시간에 삶을 나누고 구체적인 도움을 얻으며 마음의 상처에 대해 위로를 받는다.”<sup>1</sup>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설교 말씀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라는

---

<sup>1</sup>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81.

리더를 중심으로 일주일의 힘든 일, 행복한 일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오해를 한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깊은 삶의 나눔을 통해서 친근한 가족공동체를 회복의 필요하기에 가정교회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교회에는 말씀 양육이 있다. 그것은 성경만 얘기하지 않는다. 삶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지를 알려준다. “삶 공부는 말 그대로 삶에 대한 공부다. 인간의 지적인 면을 만족시켜 주는 삶 공부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앙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다섯 개의 필수 과정과 여러 개의 선택 과정이 있다.”<sup>2</sup>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가정교회에는 탁월한 양육프로그램이 있기에 이 시대에 더욱 가정교회가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했다. 그러다 보니 성경대론이 아니라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역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한다.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심방을 하고, 평신도가 행정적인 부분과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역한다. 이렇게 평신도가 사역을 하다 보니 평신도들이 목회자의 영혼들을 향해 품는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된다. 가정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다 보니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목회에 집중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넷째,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은 결국 선교이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한다. 헌금과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선교가 이뤄진다. 보통의 교회들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

<sup>2</sup>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서울: 두란노, 2024), 68.

기도하고, 교회 헌금으로 선교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 성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교회 선교는 다른 점이 있다.

각 목장마다 선교사 한 명씩 후원하도록 할 때에 얻어지는 유익이 많다. 가장 큰 것이 교회 전체의 선교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후원 선교사를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는다.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낸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선교 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뜨겁다.<sup>3</sup>

가정교회의 선교는 헌금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각 목장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정해서 매주 헌금하며, 기도한다. 선교사의 편지를 보면서 그들의 기도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한 교회에서 몇 명은 선교사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목장이 마다 다양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우니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가정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대안으로 가정교회와 함께 해피데이 전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벽은 소통의 부재이다. 복음은 변함없으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제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를 넘어 쌍방 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 의미 있게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 해답으로 관계의 회복과 친절을 강조하는 해피데이 전도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전도이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관계 전도 시스템입니다. 두 날개는 해피데이 진행위원인 조직과 해피데이 기도전략인 영성이다. 조직과 영성으로 해피데이는

<sup>3</sup>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14.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는 사역이다.”<sup>4</sup> 이런 살아있는 전도 시스템으로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혼을 구원해 가야 할 것이다.

## B. 해피데이의 필요성

첫째, 해피데이 전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성경의 복음은 정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이 먼저 찾아오신 성육신이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가 교회를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먼저 그들의 삶으로 찾아가는 '성육신적 모델'이다. 차별 없이 초대받는 잔치의 비유처럼, 해피데이 전도는 복음의 공공성과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냄을 실현한다.

둘째, 해피데이 전도는 진정한 관계성을 추구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적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피데이는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과 섬김을 통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는다. 더 나아가 해피데이 전도는 상대방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개인의 삶에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교회 내부적으로 해피데이 시스템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먼저 성도의 사역화가 가능하다. 교회는 결국 목회자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연결된 유기체이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

<sup>4</sup> 김한욱,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진행위원』 (안양: 해피데이시스템, 2007), 4.

전도는 성도들을 전도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것을 통해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프로그램에 정해진 훈련으로 성도들 전도훈련, 기도훈련, 순종훈련을 시키므로, 성도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성장을 함께 할 수 있게 돕는다.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을 향하 뜨거운 심장이 회복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안이 될 것이다.

### C. 연구 내용과 방법

가정교회를 통한 연구 내용은 목장의 유기적인 공동체성이다. 불신자는 교회라는 곳에 가기가 정말 힘들다. 반면에 가정에 가는 것은 아무래도 더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된다. 가정교회를 통해 불신자에게 목원들의 일상적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전달이 흘러가게 한다. 여기에 가정교회의 일상적인 섬김과 함께 해피데이 전도의 집중적인 시스템이 더해질 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더욱 강력하게 흘러간다. 해피데이 전도의 집중적인 시스템은 이와 같다.

8주간의 집중적인 접촉과 섬김은 VIP의 마음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 익산우리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며 해피데이를 시행한 특정 교회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가정교회의 관계와 해피데이 전도의 시스템이 만나므로 전도가 극대화되고,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데 기여하게 만든다.

## II.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 A. 가정교회 사역

#### 1. 성경적 가정교회

가정교회는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말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서 4:15) 골로새에는 눔바라는 자매 집에 모였던 가정교회가 있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 1:1-2) 이 내용으로 볼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통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도시마다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하나, 로마에는 로마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마다 집집에서 모이는 수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다.”<sup>5</sup>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도 가정교회가 있었다. 초대교회도 그 당시 큰 공간이 없었기에 소규모로 가정에서 모였다. 이 가정교회는 중국의 교회에서 증명이 되었다.

---

<sup>5</sup> 볼프강 심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 박영철 역 (서울: 서로사랑, 2003), 116.

중국은 1949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 핍박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수많은 목회자들은 체포되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중국에 기독교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에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기독교 인구를 약 1백만으로 잡았다. 문화가 개방되었을 때의 중국 기독교 인구는 아주 작게 잡아서 1천만으로 보았다. 기독교인이 그 탄압 밑에서도 열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sup>6</sup>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통해서다. 중국에 교회건물이 없으니 중국인들은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없으니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서는 공산정권으로 복음이 막히자, 수많은 가정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 a. 가정교회는 성경을 따른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는 가정교회이다.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을 나눈다. 가정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가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원리로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sup>6</sup>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42.

성경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접근 방법은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이 신약교회는 이런 것이다. 신약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독선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신약교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은 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가 아닌, 이미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sup>7</sup>

결국 가정교회는 이러한 단순한 접근 방법인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졌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말하고 행동했다.

#### b. 가정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주님이 바라셨던 공동체는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였다. 즉, 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교회가 생겼다. 어쩌면 기독교 공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사라졌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이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건물에서 모였다. 교회가 교회 건물 중심이 되면서 결국 목회자들이 사역을 다 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교회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성경적인 회복을 외쳤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구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구호는 성취되지 못했다. 신학은 성경의 회복을 말해서 회복되었지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는

<sup>7</sup>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18.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약교회 즉 가정교회를 세워야 한다.

### c. 신약성경에 바탕을 둔 가정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6-18)

그리고 단순히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도행전 19:39-41) 그러므로 많은 가정교회에 담긴 의미 역시 많다. 가정교회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도들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가 이뤄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의에 “가정교회는 구역, 장년 주일학교, 순 모임, 기도회의 주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하면서 지역교회의 기능까지 완전히 해내는 교회입니다.<sup>8</sup>와 같다. 가정교회는 구역을 넘어서 교회 내의 순 모임과 기도회 모임과 지역교회의 역할까지 감당한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선포된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 을 여기에 소개한다.

1.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사도행전2:42), 사역방법(사도행전2:46-47), 리더십 스타일(마태복음20:26~27)을 가능하면 신약성경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2. 교회 성장보다 영원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디모테전서2:4)
3.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마태복음28:19~20)
4.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훈련의 방법으로 선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마가복음3:14~15)
5.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베소서4:11~12), 기도와 말씀선포(사도행전6:2~4),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 (사도행전20:28),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에베소서4:12)
6. 셀 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닌, 신약적 원형 교회를 추구한다. 가정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 1)매주일 모인다(사도행전20:7).
  - 2)남녀가 같이 모인다(로마서16:3~5).
  - 3)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고린도전서14:23~25).
7. 직제, 성례, 설교권 등 제반 사항에 관해서는 각개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된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 이처럼 가정교회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sup>9</sup>

<sup>8</sup>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158.

<sup>9</sup>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31-32.

## 2. 모범적 가정교회

### a.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가정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가정교회는 목장이라는 공동체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다. 가정교회의 모임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다. 또한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훈련된 평신도이다.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가정교회에서는 목자, 목녀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개방하고, 거기에 소속된 소그룹 사람들을 목원이라고 한다. 목원들을 매주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로 섬기며,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 일상의 삶을 나눈다. 여기서 목자와 목녀는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며, 그들은 스스로 목자와 목녀가 되어서 소그룹을 섬기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다. 또한 목원들도 그들이 목자와 목녀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들의 선택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목자와 목녀의 자발적인 섬김과 감동으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sup>10</sup>

둘째, 가정교회는 삶의 나눔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세상문화에 취할 때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없다. 허무함과 더 큰 외로움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삶의 나눔을

<sup>10</sup> 김순성, “가정교회 소그룹 구조와 기능의 실천신학적 의의,” 『복음과 실천신학』 16 (2008), 271-272.

강조한다. 목장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말씀의 나눔과 삶의 나눔과 친교이다. 특별히 전통교회의 구역모임과는 달리 예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눔에 초점을 둔다. 그룹원들은 같은 공간에 모여서 자신들이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것과 즐거웠던 삶을 나눈다. 그 삶에는 자신의 아픔과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삶의 나눔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 또한 말을 듣는 사람들도 나만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회복된다. 그리고 각자의 아픔과 기도제목을 위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므로 삶의 아픔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됨을 알게 된다.<sup>11</sup>

셋째 가정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중심이다. 가정교회의 방향성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비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관계를 기초로 한 전도를 한다. 비신자를 교회로 초대하지 않고,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 목장으로 초대한다. 그 목장 모임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맛보게 한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서 강조하는 전도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한 가지는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 훈련으로 성도들 삶을 나누는 전도이다. 이 전도는 결국 복음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또 한 가지는 분업화된 전도로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인도된 비신자에게 성경공부와 복음제시는 목회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가 분업이 될 때에 전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 더 나아가서 가정교회의 목장은 선교사를 한 명씩 정하여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서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한다.<sup>12</sup>

넷째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제자훈련의 장이다.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

<sup>11</sup> Ibid. 268-269.

<sup>12</sup> Ibid. 274-275.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sup>13</sup>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훈련 방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듣고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자와 목녀가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친교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모임이 되기 위해 매년 한 가정 이상 불신자를 전도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는 곳이 바로 목장이기도 하다.<sup>14</sup>

#### b. 가정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직분자들

가정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정교회가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직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직책은 직책을 위한 직책이 아니다. 불신자 한 가정을 주님께 인도하여 제자의 삶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직책이다.”<sup>15</sup>

학교에 반장, 체육부장, 미화부장이 있듯이 가정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가정교회를 이끄는 리더인 목자와 미래의 리더인 예비 목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등 다양한 직분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교회의 리더는 목자와 예비 목자이다. 먼저 목자는 섬기는 리더이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리더이다. 그러나 목자는 명령하는 대장이 아니라, 팀원인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다. 목자가 되려면

<sup>13</sup>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79

<sup>14</sup> 김순성, “가정교회 소그룹 구조와 기능의 실천신학적 의의,” 274-275.

<sup>15</sup> 박영철, 『제자삼는 신약교회』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213.

1년에 한 번씩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들이 담겨 있다. 첫째가 책임감이다. 이것은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의 운영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새 가족을 챙기는 것이다.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잘 적응할 때까지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예배를 함께 드린다.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며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한다. 셋째는 성실한 신앙생활이다. 목자는 영적인 리더이다. 그래서 꾸준히 영성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유로 매일 20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3장 이상 읽으며,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이유는 목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예비 목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이다. 목장이 커지면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목장을 맡을 준비를 하는 사람을 예비 목자라고 부른다. 예비 목자는 단순히 목자를 돕는 도우미가 아니라,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비 리더는 독특한 분가 방식이 있다. 보통은 새로운 사람이 나가서 개척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특정 교회의 가정교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목자가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한다. 그 이유는 원래 있던 목원들을 예비 목자에게 남겨주어야 예비 목자가 더 쉽게 적응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자는 이미 경험이 많으므로 새로운 곳에서도 잘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한다. 첫째로 말씀을 나누는 교사이다. 가정교회에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따로 있다. 중요한 점은 목자와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목자는 섬기는 일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서로 돕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목장 모임이 학교 수업처럼 딱딱한 공부 시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외의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 가정 교회의 목표는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자와 교사 외에도 여러 역할이 필요하다. 선교부장은 선교 활동을 담당한다. 각 목장마다 국내와 국외에 교회를 정해서 돕는다. 음악부장은 목장모임 시간에 많은 목원들이 참여하게 찬양을 인도한다. 친교부장은 목장모임을 할 때 목원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음식 준비 등을 주관한다. 이처럼 목장마다 필요한 역할을 만들어서 모든 멤버가 하나씩 일을 맡아 참여하도록 한다.

이처럼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리더인 목자나 교사가 되려면 회원 교인이 되어야 한다. 회원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교회에서 정하는 필수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몸과 같은 공동체이다. 어떤 생각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첫째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다. 가정 교회는 이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로 일을 나누면 행복해진다. 목자들은 혼자 일을 다 하지 않고, 목원들에게 역할을 완전히 믿고 맡겼을 때 목장이 더 활기차게 변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할 때에 회계를 맡은 분이 아이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목자가 간섭하지 않고 맡겼더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다. 셋째로 기다려주어야 한다. 교사 역할이 서툰 분이 있어도 바로 그만두게 하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며 6개월을 기다려 주었더니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가정 교회는 소수의 능력 있는 리더 혼자 이끄는 곳이 아니다. 목자, 예비

목자, 교사, 그리고 다양한 부장들이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맡을 때 건강하게 성장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정 교회는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 c. 가정교회는 다른 소그룹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가정교회와 구역은 개념부터 다르다. 구역은 교회에 일부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교회 그 자체다. 사역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구역의 방향은 결국 친교이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방향은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이다.

조직적인 면에서도 다르다. 구역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묶은 공동체이다. 구역원들은 가까운 곳에 산다. 이것 외에는 같은 점이 없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나이와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구성원 스스로가 가정 교회를 선택한다. 구성원들이 각자 가정 교회를 선택하기에 그렇기에 구성원들끼리 동질감이 매우 높고 모임을 할 때 각자의 삶을 나누기가 자연스럽다.

#### d. 가정교회의 3 축

코로나 이후에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모임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 모임과 가정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가정교회의 3가지 축이 있다. 바로 목장 모임, 삶 공부, 주일 연합예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가정교회는 3축으로 진행이 되는가? 사람은 지, 정, 의라는 세 가지가 있다. 지는 지식이고, 정은 깨닫는 것, 의는 행동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 세 가지가 채워져야 점점 성장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자랄 수 있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학생 선교단체는 대학생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캠퍼스 복음화와 제자훈련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회심하고 훈련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대학생 선교단체는 너무 지성쪽에 치우치는 경향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들의 전도와 제자훈련이 잘 통하지 않는다.

또한 1970년대에 한국 교회에 부흥회 바람이 일어났다. 유명한 부흥강사들이 몇 번의 설교로 성도들을 울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흥회의 문제는 너무 목회자의 간증과 정적인 면에만 호소를 하다 보니 성도의 신앙이 정적인 면에 치우게 만들었다. 기독교장로회 같은 교단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려고 한다. 그들은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수고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인간의 의지적인 면만 강조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과 감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 정, 의가 골고루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정교회는 사람이 가진 지, 정, 의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서 영적인 성장계 만들어 준다. 먼저 목장 모임은 3축 중 하나인데, 이 모임은 인간의 마음을 만져준다. 목장 모임에서는 목자와 목녀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식사와 간식으로 섬긴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눈물나는 삶을 나눈다.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은 나만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아픔과 기도제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준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람의 정적인 면에서 선한 자극이 있다.

다음으로 삶 공부는 3축 중 두 번째이다. 삶 공부는 쓰여진 대로 삶에 대한 깊은 공부다. 이것은 사람의 지적인 면을 채워준다. 삶 공부를 통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된다.<sup>16</sup>

세 번째가 주일 연합예배이다. 이것은 주일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말한다.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예배하므로 온 성도가 은혜를 맛본다. 은혜를 맛보게 되면 결국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진다.

#### e. 가정교회의 4 기둥

가정교회의 첫 번째 기둥은 교회의 목적을 영혼구원으로 삼는 것이다. 사람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부모의 존재의 이유는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로서 존재 이유는 범죄자를 검거하므로 이 세상이 질서를 유지한은 것이다. 모든 사람과 원리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외형의 교회 성장보다는 영혼구원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목표를 둔다”<sup>17</sup>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만드시 세워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제자를 삼는 방법이 나온다. 바로 1.가라, 2.세례를 주라.

<sup>16</sup>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66-68.

<sup>17</sup> 최영기, 『교회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요단, 2015), 20.

3. 가르치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불신자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라 전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헌신된 제자는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인 것이다.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니까 가정교회는 정말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교인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이 교회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초청하느냐를 가정교회는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에서 모든 행사나 이웃의 섬김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행사가 행사로 끝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한다.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성령님만이 믿는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sup>18</sup> 가정교회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와 목녀이다. 이들의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가정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

가정교회의 두 번째 기둥은 가정교회는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제자훈련이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막 3:14-15)고 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도록 하셨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 주신 것이다. 또한 말씀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위주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을

<sup>18</sup>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준 역 (서울: 디모데, 2003), 193.

이것을 삶으로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보고 그의 삶을 배웠고, 그의 사역을 배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다.<sup>19</sup>

한국교회는 선교단체와 사랑의 교회와 같은 대형교회를 통해 영적인 부흥을 맞보았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주입식 교육의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제자훈련은 다르다. 가정교회 제자훈련은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 교실 교육보다는 삶의 자리에서의 제자훈련이 이뤄졌다. 쉽게 말해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제자훈련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삶 공부로도 이뤄지지만 더 큰 제자훈련은 목장 나눔이다. 목장 나눔은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다. 리더인 목자와 목녀는 목원들을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매일 일정시간을 기도한다. 목원들의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더 나아가 매주 목자의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다. 목자와 목녀는 목원들을 위해서 매주 식사와 간식을 준비한다. 매주 가정을 초대하는 수고와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목원들이 보면서 리더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이 모습을 보고 전도로 이어진다. “가정교회에서 전도가 잘되는 이유는 목장 식구들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이다.”<sup>20</sup> 이런 이유로 가정교회가 전도가 잘된다. 더 나아가 목자와 목녀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영성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영성이자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영성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인가?

<sup>19</sup>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76.

<sup>20</sup> 최영기, 『목자의 마음』 (서울: 두란노, 2020), 276.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이다. 수많은 갈등이 항존하는 곳, 처절한 삶의 싸움이 진행중인 시장에서 예수님은 영성을 유지하셨다. 위의 말한 목장에서 배우는 영성이 그것이다. 목장에서는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상사와 갈등이 깊어져 사표를 던지고 싶고, 죽어라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러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지 보여준다.<sup>21</sup>

이처럼 목장이야 말로 최고의 제자훈련의 장소인 것이다.

가정교회의 세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사역 분담이다. 성경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시스템화 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생겨났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듯하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 봉사의 일을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은 아니다. 12절 봉사라는 말의 뜻은 집사와 어원이 같다. 그래서 이것은 섬기는 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 목회자만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성도이기 때문이다. 평신도가 이렇게 목회자가 주로 하는 사역에 참여를 하면 평신도들도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된다. 또한 평신도는 목회자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지 그 마음을

<sup>21</sup>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77.

알게 된다. 평신도의 사역 참여에 그들도 참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평신도가 사역에 참여하므로 목회자는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말씀을 묵상하므로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 가정교회의 네 번째 기둥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종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같이 있는 사람들 높였다.

### 3. 가정교회의 모델: 휴스턴 서울교회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부흥하며 건강한 교회 성장을 거쳐 건강한 교회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가정교회는 최근에 생긴 유행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원래 교회의 모습이다. 성경 속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집에서 모여 밥을 먹고 삶을 나누며 기쁨 속에 살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다.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성령님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비신자들이 그들의 사랑에 녹아지면 교회가 점점 커졌다.”<sup>22</sup>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다.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성령의 역사와 그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모습을 회복하면 그때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를 시작되었다. 가정교회로

<sup>22</sup> 최영기,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다』 (서울: 두란노, 2015), 31.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한다.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이 내용을 설교의 핵심으로 삼는 변화를 주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교회는 부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 받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할 분담을 매우 잘했다. 성경에 따르면 목사와 성도의 역할은 다르다. 목사는 성도를 훈련하고, 실제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신도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제2의 종교개혁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가정교회가 기존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

가정교회의 정신과 더불어 계속 강조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VIP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었다. 가정교회에서는 비신자를 VIP로 부른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비신자라고 불렀다. 불신자는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sup>23</sup>

또한 휴스턴 서울교회는 역설적으로 ‘수평이동’을 금지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다른 교회에 다니던 신자가 옮겨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 교회의 모든 힘을 쏟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이 방문하면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서 잘 적응해 보라고 권했다. 이미 구원받은 방문자는 약한 교회를 돕도록

---

<sup>23</sup> Ibid., 38.

권유하고 등록을 정중히 거절했다. 휴스턴 서울 교회는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목사는 주보에 칼럼을 써서 자신의 일상과 실수, 약점까지 솔직하게 공개했다.

목사가 먼저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자, 교인들도 목사를 인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친밀감이 생겼다. 이러한 신뢰는 가정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교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을 했다.

수양회에서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며 오해를 풀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시기 위함이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서 가정교회가 잘 뿌리내리게 되었다. 수양회의 중요한 것은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부부가 서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벽을 허물었고, 성도끼리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이 과정을 통해 서먹했던 관계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었다. 수양회를 통해서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사람이 앞에 나오면 다른 사람이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의 마음속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장점을 칭찬하는 훈련을 했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부부 사이에 있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부부와 목원들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 서로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진정한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었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가정교회로 뿌리내린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에 가지치기를 잘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에 집중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했다. 주일에 연습하느라 전도 대상자를 챙기기 어려운 성가대는 수요일 연습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름도 찬양대로 변경했다. 또한 가정교회인 목장과 역할이 겹치는 남녀 선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었다. 목장에서 봉사와 교제, 전도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회가 굳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남녀선교회도 서로 상의해 가면서 없애게 되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강제로 없앤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인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린 후에 진행했기에 반발 없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스턴 서울교회는 감동적인 축하 행사를 잘 하였다. 누군가 교육을 마치고 제자가 되면 포옹을 통해 축하한다. 자신을 섬겨준 목장 식구들을 소개하고 감사를 전하며 서로 안아주는 이 시간은 큰 감동을 준다. 가정교회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람의 변화이다. 알코올 문제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던 진정섭 씨는 목사의 신뢰와 목장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다. 그는 지금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사례는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행복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4. 가정교회를 정착시킨 리더십

어떤 공동체든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휴스턴 서울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교회에 최영기 목사의 리더십이 있었다. 그 리더십이 휴스턴 서울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고, 전 세계에 가정교회에 대한 큰 도전을 주었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최영기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한다.

나는 특별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회자 콘퍼런스에서 가정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하지만 회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강의의

내용도 리더십이 아니라 가정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주었다는 내용이다. 최영기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뿐이다. 가정교회의 리더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다.<sup>24</sup>

최영기 목사의 리더십 원칙과 삶의 태도는 다음과 같을 보겠다. 첫째, 최영기 목사의 리더십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그 비결이다. 최영기 목사는 자신이 대단한 리더십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보니 사람들이 따라와 주었고, 가정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가정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둘째, 평신도를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목회철학이 중요하다. 가정교회 리더십의 핵심은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다.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돕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다. 셋째, 그의 리더십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다. 세상의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가정교회 리더십은 다르다. 성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넷째, 그의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리더가 일을 맡길 때는 그냥 시키기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지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다”<sup>25</sup> 이것이 가정교회의 리더십이다. 최영기 목사는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 원리를 가르쳐준 다음, 믿고 맡기는 3단계를 실천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보통 교회에서는 말로만 가르친다. 리더의 실천이 부족하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sup>24</sup> Ibid., 74.

<sup>25</sup> 로버트 E 콜만,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말씀사, 2010), 91.

달랐다.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리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삶에서 보여 주게 하였다. 다섯째, 건강관리도 리더의 실력이다. 리더가 아프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최영기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철저하게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게 했다.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는 날마다 영성과 시간, 건강관리까지 최선을 다했다. 여섯째, 최영기 목사의 리더십은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았다. 최영기 목사는 이성 문제 등에서 꼬투리 잡힐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여성 성도와 단둘이 차를 타지 않고, 상담할 때도 문을 열어두는 등 철저하게 사생활을 관리했다. 이런 철저함이 자신의 영성과 삶을 지켜내는 힘이었다. 여덟 번째 최영기 목사 리더십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 사람들은 보통 급한 일에 쫓겨 살기 쉽다. 하지만 최영기 목사는 시간이 부족해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중요한 일인 기도와 말씀을 먼저 챙기며 시간을 관리했다. 이렇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니 목회자로서 쫓기지 않았다. 이런 자기 관리가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 a. 영혼 구원을 향한 리더십의 시작

가정교회의 모든 활동과 행정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리더십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결정이 이 목적과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최영기 목사는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나타난다.

## b. 교회 행정은 평신도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

“본 교회는 행정 목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 목사의 역할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sup>26</sup> 이를 위해 리더는 사역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고, 원칙을 벗어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교통정리 역할을 담당한다.

회의의 원칙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다.

“목회의 성공은 당회나 안수집사회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집사나 장로를 목회의 후원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견제자로 만드느냐에 목회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sup>27</sup>

이와 같이 목회의 방향은 제직들을 후원자 또는 견제자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이 있다. 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안수 집사회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다. 따라서 회의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발언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또한, 어떤 일을 제안한 사람이 직접 그 일을 실행하게 하여 책임감 없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한다.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새벽 기도 후에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평등과 공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교회 내에 특정 사람들만 권력을 갖는 파워 그룹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 책임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투표로 새로 뽑는다. 교회의 규칙은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sup>26</sup> 이재철, 『사명자반』 (서울: 홍성사, 2005), 238.

<sup>27</sup> 최영기,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다』, 97.

적용되어야 한다. 예외 없는 원칙이 지켜질 때 성도들은 오히려 리더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된다.

c.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진심을 전하는 4가지 비결이 있다

최영기 목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에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 바로 단순성, 반복성, 일관성, 다양성이다. 최영기 목사는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은 깊이 있으면서도 단순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일관되기 때문에 혼돈이 없고,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교인과 소통할 수 있었다.<sup>28</sup>

이와 같이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소통을 정의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룬 것이다. 특히 최영기 목사는 리더의 적절한 유머는 성도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공동체에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꾸준히 준비했다.

d. 사역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위임

리더가 사역을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결정한 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교회 등록, 목장 선택, 사역 참여 등 모든 과정을 본인이 자원하여 신청하게 한다. 억지로 시키지 않고 기다려줄 때 성도들은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sup>28</sup> Ibid., 103-104.

e. 사역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위임

사역을 맡긴 후에는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고 그 사역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리더가 지나치게 코칭하거나 관리하면 사역자가 주인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임은 사역자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역자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다.

f.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내 교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성도들이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훌륭한 사역자로 남을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이다. 리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실하게 목회할 때 성도들은 그 진심에 감동하여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교회 리더십의 완성이다.

5. 익산우리교회의 가정교회 사역과 프로그램

익산우리교회는 원래는 가정교회를 하지 않았다. 그전에 제자훈련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제자훈련이 참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점점 제자훈련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머물렀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성경공부를 하면서 성도 간에 친밀해지고, 섬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였다. 그 결과 익산우리교회는 가정교회를 도입하게 되었다. 익산우리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먼저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정신을 지향하여 준비하고 진행했다. 익산우리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평신도 중심의 목회였다. 앞으로 교회 사역은 더 이상 목회자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준비되지 않았다.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했을 뿐 나머지 진행은 평신도 리더들이 감당하였다. 그래서 익산우리교회는 평신도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목자와 목녀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목자와 목녀가 세워지고 나서는 목장 모임을 살리려고 준비했다. 목장모임은 단순한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실제로 구현된 자리였다. 그리고 원칙대로 목자와 목녀 중심으로 준비된 식사를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목장 모임 때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바쁜데, 매주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분도 함께 대화를 나눠서 잘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목장 모임을 통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인사만 하던 관계가 삶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서 목장은 더 친근해지기 시작하였고 점차 정착되어 갔다.

#### a. 가정교회의 핵심은 삶 공부

그렇게 익산우리교회는 가정교회가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삶 공부를 무척 강조하셨다. 평일 밤에 여러 가지 삶 공부를 개강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힘썼다. 특별히 목장에 처음 오신 새가족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기쁨이 컸다. 목장에서 서로의 일상을 삶을 나누고, 같이 아픔을 말하고, 같이 좋았던 일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삶 공부는 5단계로 진행이 된다.

그 첫단계가 새가족이 하는 생명의 삶 공부이다. 그런데 생명의 삶 공부는 정말 신학의 조직신학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죄와 구원, 일상에 삶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며 깊으면서 큰 도전을 주는 성경공부이다. 생명의 삶 공부는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생명을 배우므로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배우며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는 성경공부 과정이다. 생명의 삶은 “전통적인 성경 공부 방법으로는 성경의 재미가 잘 전달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루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핵심적인 성경구절 3~4개를 선정해서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쉬운 일상 예화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 대화하듯이 인도하는 성경공부 교수법이다.”<sup>29</sup>

그래서 1단계 생명의 삶은 신앙의 기둥처럼 중요하다. 이 책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sup>30</sup>는데 책의 모든 내용이 집중되었다.

2단계는 확신의 삶 공부이다. 이는 1단계 생명의 삶을 마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는 성경공부 과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복과 책임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더 실제적으로 알려준다.

3단계 성경공부는 새로운 삶이다. 이 성경공부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sup>29</sup> 최영기, 『생명의 삶』 (서울: 두란노, 2024), 8.

<sup>30</sup> 최영기,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 (서울: 요단, 2009), 5.

단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내면의 변화, 성품의 성숙, 죄의 문제를 깊이 알려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4단계 성경공부는 경건의 삶이다. 이 성경공부는 영적인 훈련과 경건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는 성경공부이다. “영적 삶에 대한 고전적 훈련들은 표면적 생활에서 벗어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명한다. 그들은 영혼 깊숙한 동굴을 답사하라고 명한다.”<sup>31</sup> 영혼 깊은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의 핵심 내용은 기도, 말씀 묵상, 금식 등 개인의 경건 훈련과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하는 경건을 배우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모든 삶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삶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돕는다.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 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훈련한다.

#### b. 매주 가정에서 모이는 익산우리교회의 목장모임

익산우리교회는 매주 11개의 목장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일상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삶을

<sup>31</sup> 리차드 포스터,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류형기 역 (서울: 보이스사, 1990), 15.

나누는 진정한 영적인 가정이 되어져 갔다(그림 2-1).



그림 2-1. 목장모임 모습

## 목 장 모 임 순 서

1. 환영(Welcome) - 애찬, 마음 열기 - 30분
2. 경배와 찬양(Worship) - 20분
3. 말씀 나누기(Word) - 20분
4. 삶 나누기 - 1시간

**나눔 시간은 한 주간 겪었던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교회에 관한 문책나 다른 사람이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충성입니다 / 고린도전서 4:1~2 (16.9.4.주일날)

오늘 본문말씀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는 교회 일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 맡은 자, 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꾼, 맡은 자란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우리는 맡은 자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욕은 대로 살지 말고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큰 업적을 이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고 말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일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에 충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생각에 충성을 합니다. 그것은 맡은 자,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면 때에 자기 욕은 대로 살았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은 맡겨주신 분의 뜻을 열심히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맡길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 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실패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사야 6:9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사는 실패할 일에 부름 받고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결국 이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무지한 것입니까? 절대없는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사가 아닌 진정한 충성된 일꾼입니다. 알은 지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일꾼입니다. 그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내 뜻과 맞고 내 생각과 맞고 무언가 영광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 일을 통해 나의 충성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알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충성하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결과에, 능력에, 환경에, 조건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전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은 자고 늘 구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성하십시오.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모세가 능력 있던 젊을 때,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니다. 80이 넘어서 모세가 무력해 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부르실 때도 열심을 가지고 충성할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일, 맡기신 일에만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든 나는 그의 쓰심에 충성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해피데이를 통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충성하게 하십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정말 마음 다해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적당히 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인내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미려한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들든지 아니 들든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맡기신, 주되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내게 알려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심정으로 전도자로 충성하는 해피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충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전도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5. 중보기도 - 전 목원들을 위해 기도 (Work) - 10분
6. 선교와 전도 - 선교지와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 - 5분
7. 광고
8. 찬양 부르고 헌금, 주기도문으로 마침

그림 2-2. 가정교회 주보

이 목장 모임 순서지를 통해서 각 목장마다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일상의 삶을 나눈다. 특히 목장 모임 순서지에 적혀진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 말씀을 살아낸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대상자와 각 목장에서 선교하고 있는 자립대상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다(그림 2-2).

### 목장 보고 및 선교 현황

순	목장	모인수	새벽기도	선교지	지원	다음모임소
1	신석박정지	6	3	신석교회 이강수 목사	8.24	이복실
2	평하김옥입	7	5	평화센터 오상렬 목사	8.24	윤용목
3	영하양순자	4	4	영화교회 정두수 목사	8.24	이길택
4	필리핀윤병철	7	5	필리핀6이모세 선교사	8.25	최승은
5	행복현애	4	2	제일행복한교회 이승범 목사	8.25	유명숙
6	함께하는빈영일		2	함께하는 교회 이정수 목사	8.25	빈영일
7	가나안현중숙	5	5	선교사 김보라 선교사	8.24	김경남
8	두모김상현	4	3	두모교회 문병훈 목사	8.25	김상현
9	중국고민호	7	4	중국 김태근 선교사	8.24	고민호
10	인도조양순	5	3	인도 이희운선교사	8.25	조양순
11	주바라기 고전선	8	1	몽골우리들교회 허성환선교사	8.20	교회

그림 2-3. 매일 목장모임 모인 수와 목장별 새벽기도 참석수

익산우리교회는 가정교회로서 11개의 목장이 있다. 각 목장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자립대상교회가 있으며, 목장 보고 및 선교 현황표를 통해서 목장모임에 몇 명이 참석했는가를 알 수 있다. 목장별로 새벽기도에 참석자 수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장의 리더들과 함께 동역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그림 2-3).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5일씩 목장별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을 했다. 이것을 개인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목장별로 서로 챙기고, 목장별로 차량운행을 하여 함께 한 달에 5일은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 목장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평소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목장별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목장별 새벽기도회

### c. 우리교회 가정교회 양육프로그램

우리교회는 매주 모이는 목장모임과 더불어 신앙의 첫 단계부터 성경공부를 계단식으로 하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 이 성경공부를 하면 말씀의 지식과

치열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1단계가 확신의 삶, 2단계 생명의 삶, 3단계 새로운 삶, 4단계는 경건의 삶, 5단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순차적인 성경공부를 성도를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든다.

1단계 성경공부는 확신의 삶(7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로 사는 첫 걸음을 바르게 내딛도록 목자가 목원을 인도하는 일대일 수업의 삶 공부이다. 생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이라면 생명의 삶 수강 전에 확신의 삶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목자들이 어느 정도 섬김이 몸에 배었을 때 도입하면 좋다(그림 2-5).

2단계 성경공부는 생명의 삶(13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신앙의 근본을 바로잡는 삶 공부이다(그림 2-6).

3단계 성경공부는 새로운 삶(13주):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되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공부이다(그림 2-7).

4단계 성경공부는 경건의 삶(13 주): 크리스천이 삶에서 기도, 예배, 섬김, 고백의 훈련 등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배우고 연습하는 삶 공부이다(그림 2-8).

5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13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지를 성경과 기도 등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는 삶 공부이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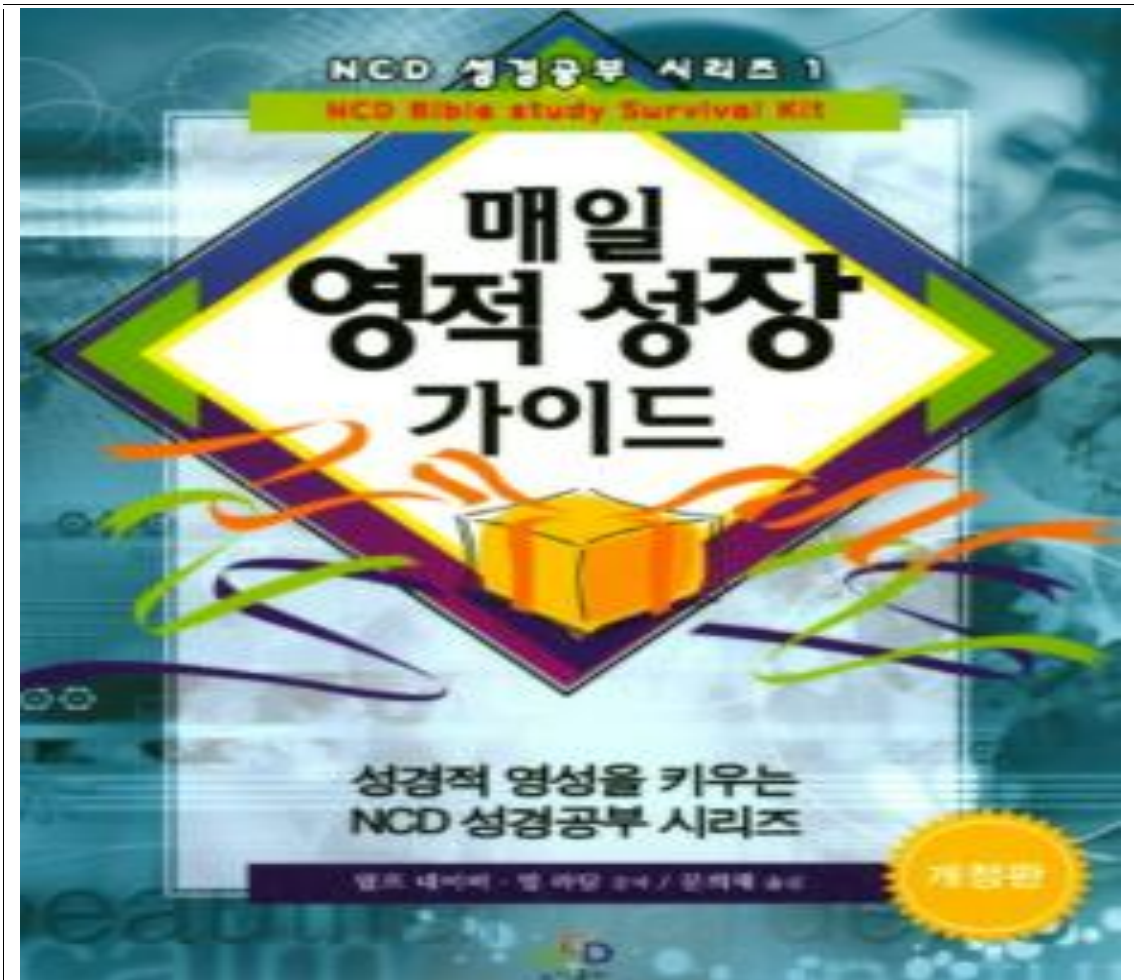


그림 2-5. 확신의 삶



그림 2-6. 생명의 삶



그림 2-7. 새로운 삶

Richard J. Foster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 리처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

Celebration  
of Discipline

리처드 포스터 저 | 연달한 · 황윤호 옮김

많은 독자에게 애독되어 온 이 책은 내적 훈련과 외적 훈련, 안목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삶'을 소개한다. 묵상, 기도, 금식, 헌신, 단순성, 용서, 사랑, 영성, 고백, 세례, 영도하심같이, 즉행(即行)의 훈련은 우리에게 외적 훈련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임하게 한다.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다!”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의 대표작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 고전!**

독자들도 인정한 30년 스테디셀러

홍성출판사

그림 2-8. 경건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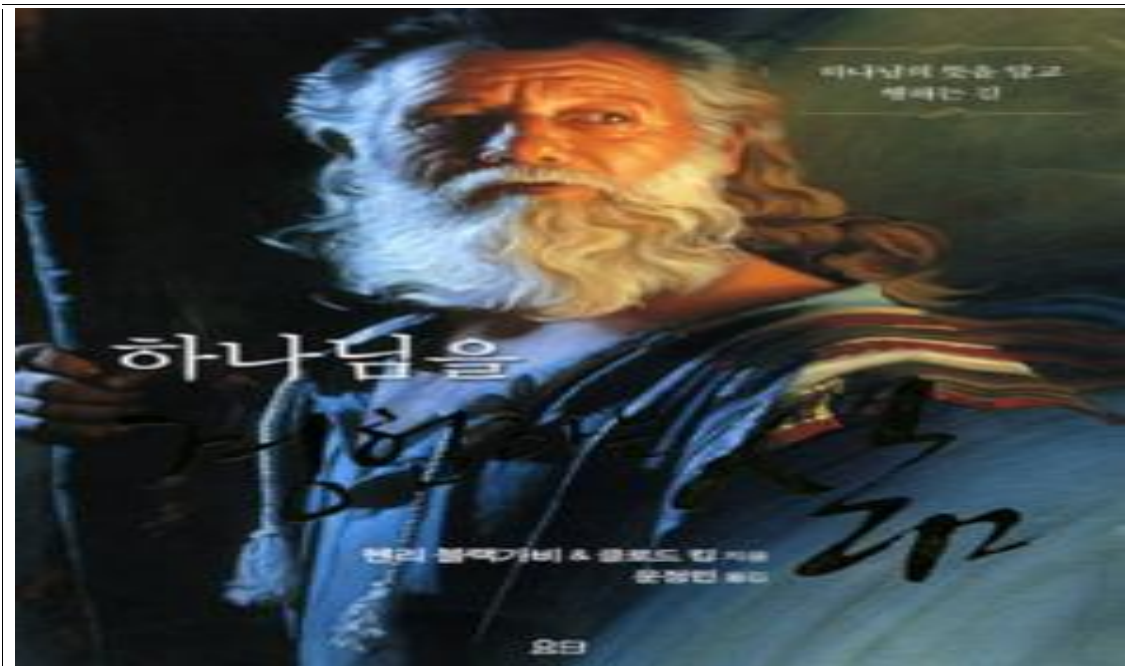


그림 2-9.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교회의 가정교회는 정기적인 목장모임과 삶 공부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인들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와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 B. 해피데이 사역

### 1. 해피데이 전도란

해피데이 전도는 관계 중심적 맞춤형 전도 시스템이다. 특정 하루를 해피데이(행복한 날)로 정해두고, 온 교인이 8~10주 동안 함께 준비하여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 영적 축제이다.

해피데이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의 전도는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전도는 쉽게 지칠 수 있다. 그러나 해피데이는 전 교인이 약속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이는 혼자 하는 축제가 아니라 팀 프로젝트와 같아서 더 큰 힘과 효과를 발휘하므로 축제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해피데이 전도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전 성도의 동력화 해피데이 전도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전도 왕이나 전문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전도가 특별한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한다. 둘째, 관계 중심의 베스트 전략이다.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방전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 주변 인물을 베스트로 지정한다. 전도 대상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초대를 받기에 거부감이 적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 전도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되므로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해피데이는 지속 가능한 전도이다. 셋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 해피데이는 무작정 전도하지 않는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매주 수행해야 할 과업(Mission)이 정해져 있다. 전 교인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동일한 주제로 훈련을 받는다. 접촉의 기술: 문자 메시지, 전화, 작은 선물, 식사 대접 등 단계별로 거리를 좁혀가는 전략을 사용한다. 넷째, 감동 중심의 섬김 문화 현대인들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진심 어린 섬김에 마음을 연다. 해피데이 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섬김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전도자가 대상자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갖게 만들며,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계기가 된다. 다섯째, 해피데이 당일이 중요하다. 해피데이 당일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영적 잔치의 성격을 띤다. 최상의 환대(Hospitality)와 고품격 문화 공연, 그리고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 2. 해피데이 전도의 원리

일반적으로 전도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어색한 상황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해피데이 전도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는 마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나 게임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강요에 의한 방문이 아니라, 친구가 스스로 오고 싶어 하는 행복한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이 전도의 핵심이다.

해피데이 전도의 3대 핵심 원리는 이러하다.

첫째, 오이코스(Oikos) 즉 관계의 우선순위이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또는 가족을 뜻한다. 해피데이 전도는 낯선 타인이 아닌, 이미 전도자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하는 전략이다. 둘째, 평소 친분이 두터운 친구, 가족, 학원 동료 등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신뢰 관계 덕분에 전도자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피데이 전도는 일회성 권유에 그치지 않고, 8주 혹은 10주간의 체계적인 스케줄을 바탕으로 진행된다(표 2-1).

단계	활동 내용	비유
1단계: 예비	초대할 대상을 선정하고 기도하는 단계이다	파티 명단 작성
2단계: 접촉	작은 선물이나 문자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단계이다	예고편 상영
3단계: 초대	특정 날짜에 정중하게 참석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공식 초대장 발송
4단계: 실행	'해피데이' 당일, 최선의 환영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파티 즐기기

표 2-1. 해피데이 전도 단계

해피데이 전도 과정에서는 봉어빵 전도나 선물 전달과 같은 활동이 수반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물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에 맞춘 개인별 관심이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로 힘들 것 같아 준비했다는 식의 진심 어린 격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피데이 전도 원리의 바탕에는 친구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따라서 해피데이 전도는 전략적 준비와 진실한 관계가 만났을 때 전도자와 대상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윈-윈(Win-Win)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 3. 해피데이 전도 진행방법

해피데이 전도 진행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 베스트(전도 대상자) 선정이다. 기간은 1~2주차이며, 전도하고 싶은 대상 3~5명을 정합니다. 그들을 '베스트'라고 부르며 명단에 이름을 적고 기도를 시작한다. 둘째, 관계 쌓기와 섬김이다. 기간은 3~6주차이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3-3-3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3번 기도는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3번 접촉은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안부 묻고, 3번 만남은 함께 떡볶이를 먹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등 실제 만남 갖는 것이다. 셋째, 7주이면 해피데이 축제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다. 이 때 교회로 초대를 한다. 예쁘게 디자인된 초대장과 함께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날 너를 꼭 초대하고 싶어.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날이라고 한다. 넷째, 8주 이후로는 축제 및 정착이다. 당일 교회에 온 친구를 정성껏 환영한다. 축제 이후에도 함께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계속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해피데이 전도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기도로 준비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섬길 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

#### 4 우리교회 해피데이 적용과 프로그램

##### a. 우리교회의 해피데이 운영 개요

우리교회는 매년 하반기에 일정한 기간(보통 8~10주)을 정해 전 교인이 참여하는 시스템 전도를 시행한다(그림 2-10, 2-11, 2-12, 2-13, 2-14, 2-15, 2-16; 표 2-2, 2-3, 2-4, 2-5, 2-6, 2-7).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성도들의 영적 체질을 전도체질로 바꾸는 훈련과 행복의 과정이다.

b. 우리교회 프로그램의 특징

1) 공동체성 강화를 강조했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전도대상자를 관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친밀함과 유대감이 매우 깊다.

2) 꾸준한 제자양육을 강조했다. 해피데이 당일에 등록된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복음의 이해하는 성경공부반을 만들어서 후속 양육 프로그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교회의 해피데이는 철저한 기획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결합된 종합적인 복음 전파 시스템이다.

우리교회는 철저히 기도로 해피데이를 준비해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한다. 특히 매주 목요일 밤에 진행위원들 모임을 통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매주 전도대상자를 전도하고 섬길 전략을 철저히 준비한다.

**‘신수성가 축복의 주역’**  
*Congraturation!*  
**해피데이 10.28 진행위원 신청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 더욱 귀한 사역으로 이어지는 출발점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름	연락처	소속

그림 2-10. 해피데이 진행위원 신청서

해피데이의 핵심은 진행위원이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8주간 매주 모여서 전략을 세우고, 전도대상자를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소서!**

강명지 강삼미 경도아빠 경도엄마 경회공사장 계영아빠 고대훈 고장오 권영실 광정아 구선미  
 구정모 구정모엄마 권정희 김건호 김경미 김경식 김경옥 김계순 김규남 김규미 김근환  
 김기분 김갑남 김덕용 김병구 김명한 김병희 김미숙 김미화 김민상 김민수 김민아 김민정  
 김민지아빠지 김보선 김복규 김봉선 김봉철 김선홍 김선화 김선희 김성희 김숙해 김순애  
 김순정 김순희 김시구 김성희 김아린 김애자 김연남 김연선 김연홍 김영아 김영진 김옥림  
 김원숙 김은숙 김인숙 김재성 김재실 김정연 김정은 김종갑 김종석 김종희 김주현엄마  
 김지순 김지연 김진모 김진만 김찬원 김채현 김태준 김태희 김택환 김형기 김형순 김해정  
 김해민 김현주 김홍균 김화영 김화영딸2명 꽃집사장 낙원식당주인 남정순 노연규 노재규  
 노형규 노형웅 다희엄마 대림A101동 303호 대림A118동-1306호 대림각부부 대림문구아줌마  
 대림A101동 1103호 대림A101동 404호 도훈엄마 동석엄마 동한엄마 두환엄마 뒷집할아버지  
 건강원 떡볶이집아줌마 류영선 류영호 명원엄마 명정순 몽드랑시제과점사장 무림경비아저씨  
 문민자 문방구집사장 문순영 문혜숙 미연 미연엄마 민수할머니 민승기 민재엄마 민지엄마  
 민호엄마 박경숙 박관성 박길록 박길병 박만준 박명자 박문호 박미영 박병노부부 박병숙  
 박병훈 박상수 박선영 박성열 박성자 박성주 박성한 박순름 박승수 박승미 박영석  
 박은영 박은주 박정열 박정희 박종국부부 박종민 박주연 박지혜 박종길 박찬 박창수  
 박합남 박현경 배수정 배정희 백미라 백상현 백승용 백화실 변정수 보람엄마 보미엄마  
 사현엄마 삼영2차경비아저씨두분 삼영슈퍼부부 상남언니 상민아빠 상범엄마 새라할머니  
 서경옥 서명수 서연주 서정숙 서재원엄마 선구일 선영아빠 선영엄마 선우엄마 선희엄마  
 성아엄마 세리아빠 세립당구장부부 세은엄마 소연엄마 손병희 손진수 송낙숙 송석현  
 송주리 수빈엄마 수호의할머니 슬기엄마 승연엄마 심종섭 신동호 신성미 신숙 신아철

그림 2-11. 해피데이 작성한 사람들

10.28 해피데이가 결정이 되면 전도 작성자를 작성하게 해서 교회 안에  
현수막으로 해서 걸어두고 같이 기도하게 동기부여 한다.

## 진행위원 임무 매트릭스

	역할	구체적인 내용
진행위원장	해피데이 진행 총괄	진행위원 모임 총괄, 주차별 진행사항 체크, 분과별 사역 독려
총무	진행위원장 보조	진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적인 준비를 체크하고 진행한다.
서기	모든 문서 업무 진행 과정 데이터화	진행위원 모임 회의록 작성, 예비신자 작정현황 정리 및 후보 속지넣기 후보 속지 카드 넣기, 말씀읽기진행 문자보내기
	역할	구체적인 내용
기도분과장	효과적인 기도작전 기획 해피데이 영성 책임	기도분과 회의 진행 및 기도회 인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준비 각 기도 작전의 순서 지정과 전체 기도 진행 상황 체크 및 독려
총무	기도분과장 보조	기도분과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적인 준비를 체크하고 진행한다.
서기	기도분과 진행사항 기록 기도분과 문서 총괄	회의록 작성, 기도출석부 작성, 해피데이 기도제목/교회 기도제목 작성 기도예보시스템 문자 보내기
기도분과위원	임원들 지시에 적극 협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 작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동참
	역할	구체적인 내용
홍보분과장	해피데이 이벤트 기획 총괄 예비신자 섬김 전략 수립	홍보분과 회의 진행, 예비신자 조별섬김명단 짜기, 구호경연대회 기획 전도왕 누가될까 총괄, 해피데이 초청장 제작, 예비신자 현수막 제작
총무	홍보분과장 보조	홍보분과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적인 준비를 체크하고 진행한다.
서기	홍보분과 진행사항 기록 게시물 작업 및 문서 총괄	회의록 작성, 금주진행사항 게시판 만들기, 이벤트 결과 게시
홍보분과위원	임원들 지시에 적극 협조	다양한 이벤트와 게시물 작업, 선물 포장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림 2-12. 진행위원 임무 매트릭스

해피데이 진행위원이 되면 진행위원장과 기도분과장, 홍보분과장으로 나뉘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한다.

##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선언문

교회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섬길, 영적인 일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교인들이 십자가의 은혜 신앙양심을 회복하여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영적 고지를 점령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가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선서합니다.

### 선서!

- 첫째.**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는, 긍정 200%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절대하지 않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는, 해피데이 구호를 힘을 다해 외치겠습니다.
- 넷째.**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가동되는 8주간 동안, 전도와 기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 다섯째.** 우리는, 지금부터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영향을 주고, 데려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

Happyday System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교회

선서자 대표: \_\_\_\_\_

담임목사: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조직과 영성,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 \_\_\_\_\_ 교회에 가동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림 2-13. 해피데이 전도시스템 선언문

10.28 해피데이 당일에 담임목사님과 진행위원장이 선서를 하면 온교회가 8주간 전도에 힘쓰기를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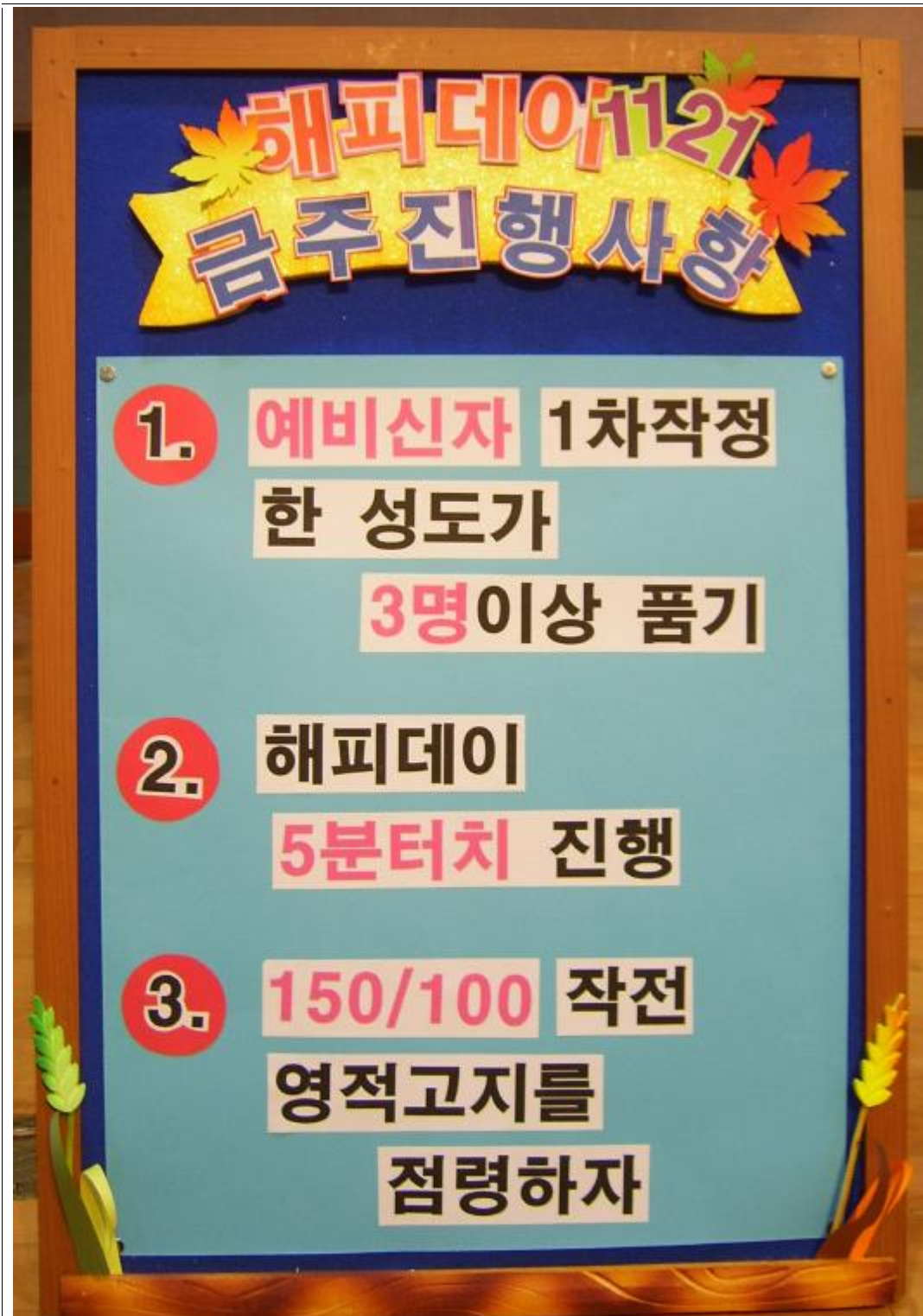


그림 2-14. 해피데이 금주 진행사항

매주 게시판에 미션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동기부여해서 진행하기 한다.

## 해피데이 000 릴레이 금식기도표

• 금식하여 영적고지를 점령합시다!

(총 .....명 동참)

18/25 (월)	19/26 (화)	20/27 (수)	21/28 (목)	22/29 (금)	23/01 (토)	02/09 (주일)
아침금식	아침금식	아침금식	아침금식	아침금식	아침금식	아침금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점심금식	점심금식	점심금식	점심금식	점심금식	점심금식	점심금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저녁금식	저녁금식	저녁금식	저녁금식	저녁금식	저녁금식	저녁금식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표 2-2. 해피데이 릴레이 금식기도표

해피데이 전도는 결국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을 한다.

### 해피데이 24시간 성전 릴레이기도 명단

(총   명 동참)

시간	00/00(월)	00/00(화)	00/00(수)	00/00(목)	00/00(금)	00/00(토)	00/00(주일)	
오전 7:00							주일예배	
8:00								
9:00								
10:00								
11:00								
오후 12:00								
1:00								
2:00								
3:00								
4:00								
5:00						청년찬양팀		
6:00						청년예배		
7:00			수요예배					
8:00			수요예배					
9:00								
10:00								
철야								

\* 성전에 도착하시면 바로 다음 시간 릴레이기도 담당자에게 전화 혹은 문자 보내주세요.

표 2-3. 해피데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표

해피데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에 행사 일주일전에는 24시간  
작정기도를 한다.

제 호

## 진행위원 임명장

성명 : \_\_\_\_\_

위 사람은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해피데이 전도시스템의 진행위원으로 선출되었기에  
해피데이 진행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을 살어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 사역에 헌신한 당신에게  
신수성가(神手成家)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후            년    월    일

교회

담임목사

목사

해피데이 진행위원장은 해피데이 사역은 전체적인 방향과 열정과  
동기부여를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그림 2-15. 해피데이 진행위원 임명장



그림 2-16. 해피데이 전도왕

해피데이 시작하는 주간에 각자 전도대상자를 작성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영적 도전을 준다.

## 0000년 진행위원 임명식 및 해피데이 선포식

순서	사 회 자 멘 트	상 황	준 비 사 항
진행위원 임명식	<p>지금부터 0000년 '해피데이 5 9' 진행위원 임명식 및 선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데이 5 9' 신수성가 축복의 주역 진행위원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진행위원으로 임명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임명자 대표 광동철 장로님은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위원 임명자 대표 : 광동철(유원지) 박진선(홍훈부)</p>	<p>모든 진행위원은 일어서고 임명자 대표는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p>	<p>강단에 임명장 2권 준비                      임명자대표용                      담임목사상용용</p>
	<p>진행위원 성명 광동철 위 사람은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일군으로 세움을 받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의 진행위원으로 선출되었기에 해피데이 진행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 사역에 헌신한 당신에게 신수성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임명장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p>	<p>임명장을 받은 후 중앙 앞 자리에 앉고 다른 진행위원들도 자리에 앉는다</p>	<p>임명자 대표가 앉을 자리 확보                      사회자멘트 때 방송실 진잔한 음악</p>
해피데이 선포식	<p>이 시간에는 해피데이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가 선서를 하면 선서를 재창해주시고 스크린에 붉은 색으로 된 문장을 큰 소리로 재창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온 성도를 일어난 후 선서자 대표는 강단 앞으로 나와 낭독 및 선창을 시작한다.</p>	<p>방송실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ppt 자료 준비                      선서자 마이크 준비</p>
	<p>선서자 선창 / 회중 재창                      성도들이 재창할 부분 1.기도하겠습니다. 2.점령하겠습니다. 3.외치겠습니다.                      4.동참하겠습니다. 5.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p>	<p>선창 및 재창이 끝나면 담임목사님 마무리 멘트 시작</p>	<p>방송실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ppt 자료</p>
	<p>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 하시면 폐회 찬송으로 이어지면 됨                      이상으로서 2010년 '해피데이 5 9, 진행위원 임명식 및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일어난 체 폐회 찬송시작</p>	

표 2-4. 해피데이 진행위원 임명식 및 해피데이 선포식

해피데이 진행위원 임명식 및 해피데이 선포식을 통해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

**해피데이 00/00 진행위원 1차 모임 회의록**

담당목사	
일 기	

일 시	
주 제	
주 회	
장 소	
참석인원 출석인원 비석인원	
1 안건	
2 안건	
3 안건	
4 안건	
기 타	

표 2-5. 해피데이 진행위원 모임표

해피데이가 시작되면 해피데이 진행위원들은 매주 모여서 영혼 구원에 대한 진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 해피데이 말씀 읽기표 [98장]

주	일	인	형	화	수	목	금	토
1 주						전통헌법 1장무위		
2 주	A	노골미이11장 (모론)	마가복음6장 (말씀)	다니엘1장 (복음경학)	창세기25장 (모론)	리본리서11장 (말씀)	사무엘상17장 (말기)	통제권기14장 (도무식)
	B	요한일서3장 (복수)	심원기32장 (복음)	고린도전서13장 (사화)	노골미이25장 (도전)	사사기7장 (술리)	누가복음5장 (사화)	사무엘상25장 (말란)
3 주	A	이사이6장 (사화)	역대기7장 (이교식)	창세기22장 (모론)	시편121편 (복음)	미수기14장 (복음)	시편62편 (복음)	사도행전27장 (술리)
	B	창세기25장 (모론)	마태복음28장 (복음사화)	역대기11장 (말씀)	사도행전16장 (복비자식)	이사이40장 (전도사화)	요한복음3장 (거론복)	사무엘상16장 (거론무위)
4 주	A	고린도전서1장 (오역복수)	마태복음25장 (복수)	이사이55장 (모론)	요한복음46장 (말복)	누가복음15장 (모론)	레위기9장 (회개)	요한복음10장 (복음말)
	B	고린도전서15장 (무위)	에골수아1장 (말대화)	마가복음1장 (전도사화)	마태복음5장 (전리)	고린도전서2장 (본사)	시편102편 (복음)	사도행전9장 (전말)
5 주	A	사도행전2장 (말복)	창세기32장 (전말)	사도행전14장 (전도말)	전도서9장 (말복)	고린도전서15장 (말복)	레위기18장 (말복)	마태복음28장 (회개)
	B	레위기9장 (모론)	출애굽기16장 (말복)	한개1장 (사화)	누가복음22장 (말복가)	레위기32장 (말어말)	다모데부서46장 (본말복)	레위기14장 (회개)
6 주	A	창세기12장 (사화)	요한복음20장 (기적)	요한계시록2장 (회개)	이사이40장 (무위)	요한계시록3장 (회개)	누가복음5장 (말란)	에고보1장 (말복)
	B	다모데부서4장 (소말)	통제권기17장 (도무식)	고린도후서4장 (말복)	말복5장 (회개)	요한계시록1장 (회개)	레위기13장 (말복)	요한일서25장 (회개)
7 주	A	말라기1장 (거론말)	누가복음4장 (복력)	다니엘6장 (말복)	마태복음12장 (전복)	시편102편 (자나복)	사무엘상1장 (거도)	시편125편 (말말)
	B	다니엘9장 (말도)	창세기45장 (복서)	마가복음9장 (말복)	야가2장 (사화)	레위기13장 (말란)	요엘2장 (복력)	요한일서5장 (말복)
8 주	A	심원기6장 (말복)	사도행전1장 (복력)	사도행전3장 (무론)	레위기27장 (모론)	노골미이6장 (이말)	요한계시록21장 (전복)	레위기25장 (말기)
	B	에골수아6장 (술리)	마태복음7장 (말복)	이사이40장 (말말)	마태복음25장 (말복)	심원기25장 (모론)	고린도전서17장 (말도자식)	레위기26장 (말복무위)
결말 데이 말말								

표 2-6. 해피데이 성경읽기표

해피데이는 영적인 전쟁이어서 해피데이를 진행하면서 성도들은 치열하게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는다.

## 2008 해피데이 000 진행현황

2008년 00월 00일 현재

※ 예비신자 작정 3명 이상은 진행중, 그 외는 미진행 표기함. 진행률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 예비신자를 작정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	직명자	직분	예비신자 명단	예비신자수	진행상태
1	신승재	목사	김영관, 김승우, 서민우, 신영우, 이태경, 최인숙, 김태훈	7	진행중
2	김영훈	목회사	홍진우, 홍삼남, 이미숙, 김경미	4	진행중
3	이광진	목회사	김태훈, 김영우	2	미진행
4	이정희	사모	백태관, 신승선, 김영훈	3	진행중
5	이광성	전도사	최인숙	1	미진행
6	김기환	장로	유영훈, 유영훈, 김소자, 이미숙, 최민우, 김영희	6	진행중
7	장영환	장로	임미희, 나필승, 신영훈, 홍이선, 진영희	5	진행중
8	신승환	안수집사	이선아, 박희실	2	미진행
9	이재원	안수집사			
10	송희숙	권사			
11		권사			
12		권사			
13		집사			
14		집사			
15		집사			
16		집사			
17		집사			
18		집사			
19		집사			
20		집사			
21		집사			
22		집사			

표 2-7. 해피데이 진행 사항

해피데이 진행위원들의 예비신자 작정이 해피데이 전도에 핵심이다.

진행위원들의 전도 작정을 통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온다.

### Ⅲ. 가정교회와 교회성장

#### A. 가정교회를 통한 익산우리교회의 성장과 변화

익산우리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제자훈련을 했던 교회였다. 제자훈련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 훈련되지 못하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목회에 접목시키면서 많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배를 관람객으로 드렸다면, 가정교회로 전환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변화되어갔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단순히 구역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성경 속 초대교회 정신이 가정교회를 통해 회복되었다. 이 시대에 우리교회는 가정교회의 접목으로 예배, 교육, 친교, 전도가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

#### 1. 가정교회를 통한 익산우리교회의 성장

목장 모임을 통한 삶의 성장이 일어났다. 가정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목장은 매주 음식을 나누며 삶의 고충을 나눈다. 이 나눔이 현대인들의 정서적 갈등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정서적 갈등의 해소를 넘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삶의 공부를 통한 성도들의 성장이 일어났다. 가정교회는 지식 전달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삶의 공부 과정을 통해 성도들을 사역의 주체로 훈련한다. 가정교회의 삶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의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났다.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서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 특히 교회만 다녔던 성도들이 삶 공부를 배우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졌다.

가정교회를 통한 리더십의 공유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교회는 담임목사의 리더십으로 모든 교회 일과 행정이 진행이 된다. 그러나 우리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리더십이 평신도 리더인 목자에게 공유가 되었다. 목자는 자신의 목장에서 실제적인 목양 사역을 감당하며, 이를 통해 목자들은 평신도 사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쌓이게 되었다. 목장에 소속된 10명의 목원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담임목사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 2. 가정교회를 통한 익산우리교회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불신자 전도에 대한 큰 도전이다. 가정교회의 전도는 관계 중심적이다. 불신자를 목장에 초대하여 기독교적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담임목회자와 당회 중심의 교회였다. 그러나 가정교회로 전환되면서 수평적인 변화가 생겼다. 바로 목자 회의와 목장들의 연합모임을 통해서 의사소통은 더 활성화되고, 의사결정은 더 빨라지고,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가르치는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정착으로 인해 보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각 목장에서 목원들이 목자의 섬김을 보고 배운 후 다시 목자로 분가해 나가는 재생산의 구조는 교회의 지속성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도입하면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경험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정말 가족처럼 변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목장에서 서로의 아픔과 삶을 고백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 B.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과 변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진리 전달보다 관계와 감동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에, 기존의 전도 방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해피데이 전도는 혼자 하는 전도가 아니라 팀으로 하는 전도다. 그러니 즉흥적으로 맡기는 전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전제로 한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진행하다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다가 해피데이 전도를 접목하게 되었다.

## 1.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익산우리교회의 성장

관계 중심의 전도를 통한 자연스러운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해피데이 전도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이들로부터 시작하는 전도이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VIP'로 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그 후 8주간 7번 이상의 만남과 섬김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전략을 펼치게 된다. 선물이나 식사, 진심 어린 경청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준비된 해피데이 당일에 이들을 초대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잔치를 연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전도가 딱딱한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축제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교회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등록된 새 가족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높은 정착률을 보였다. 결국 교회는 역지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건강한 관계를 통해 성장을 이룬다.

평신도 사역자를 통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는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성장뿐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경험했다. 해피데이 전도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 구조를 평신도 주도의 역동적인 구조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안내, 주차, 식사, 공연 등 전도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관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VIP를 섬기는 과정에서 성도들 스스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며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다. 함께 전도 전략을 짜고 기도하는 소그룹(목장이나 구역)의 결속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다. 사역에 참여하며 얻는 성공의 경험은 성도들에게 영적 자신감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체계적인 후속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다. 해피데이

시스템의 강점은 행사 이후에 가동되는 정밀한 관리 체계에 있다. 우리 교회 또한 행사 당일 등록된 새 가족을 위해 훈련된 바나바들이 즉시 일대일로 매칭된다. 바나바는 새 가족이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식사를 함께하며 궁금증을 풀어주게 된다. 이어지는 기초 양육 프로그램은 초보 신자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새 가족이 소그룹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정착 시스템은 전도된 인원이 다시 교회를 떠나는 뒷문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한 명의 영혼이 정착하여 또 다른 전도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된다. 이것은 일시적인 이벤트를 넘어 대를 이어 지속되는 부흥의 문화를 만드는 비결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하며 많은 부흥을 경험했다.

## 2.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익산우리교회의 변화

우리 교회의 체질이 전도 중심으로 개선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해피데이 전도는 정체된 교회의 분위기를 전도 지향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다. 전도를 어렵게만 느꼈던 성도들이 8주간의 집중 기도를 통해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된다. 예비 신자인 VIP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 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내부에 강력한 영적 동력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개인이 하지 않고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니 교회 체질이 변하게 되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결국 교회 안에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뜨겁고

견고 해진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해피데이 전도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평신도 중심 사역으로 변화시킨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차, 안내, 식사 준비, 영상, 공연 등 다양한 팀에 배치된다. 그러니 자신이 맡은 작은 역할이 영혼을 구원하는 큰일에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던 성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공동체의 핵심 멤버가 된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런 효과가 있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던 성도가 8주간의 해피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더 은혜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 갔다. 이러한 경험은 성도들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사역자'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평신도가 깨어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생력을 가진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

관계와 섬김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해피데이 전도는 지역사회와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교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강요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전도는 진심 어린 섬김과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다. 성도들이 VIP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교회의 문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교회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초청 잔치 당일 보여주는 수준 높은 문화 공연과 따뜻한 환대는 교회에 대한 호감을 극대화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일회성 방문을 넘어 새 가족이 교회에 오랫동안 정착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세상과 소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이 된다.

### C.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사역간 상호보완성 및 효과

익산우리교회에서 7년간 사역하면서 경험한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 사역의 상호보완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교회가 제공하는 관계의 깊이와 해피데이 전도가 제공하는 전도의 넓이가 만나 성장의 상호보완 효과가 나타난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강력한 침투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로 인도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해피데이 전도가 넓은 그물로 영혼을 수확한다면, 가정교회는 그 영혼을 소중히 잃어버리지 않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는 보관소이다. 그래서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가 결합할 때에 전도된 VIP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에 뿌리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이들의 상호보완은 교회의 건강한 양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역이 된다.

가정교회가 제공하는 일상의 리더십 훈련과 해피데이 사역이 제공하는 명확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만나 사역의 상호보완 효과가 나타난다.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목자로 세워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피데이 전도는 이러한 평신도 리더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도전 과제를 제공한다. 가정교회에서 훈련된 리더십은 해피데이 전도 기간 동안 전도 팀원들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 성도들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전도의 야성을 깨우고, 가정교회를 통해 목양의 섬세함을 배운다. 이런 훈련 과정에서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조력자를 넘어 독립적인 사역의 주체가 된다. 목회자는 목양의 부담을 나누고 전체적인 비전 제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가 생긴다. 이는 교회의 사역 체질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가정교회가 제공하는 장기적 지속성과 해피데이 전도가 제공하는 단기적 폭발력의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음 전파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해피데이 전도는 단기적인 집중력을 통해 교회의 영적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열기는 지속되지 않고 불씨로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적 삶을 살게 한다. 또한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등록된 새 가족은 가정교회에서 목자로 성장하며 또 다른 전도자가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인위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든다. 가정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해피데이 전도 이후에 올 수 있는 영적 공허함을 완벽히 보완한다. 시스템이 주는 효율성과 공동체가 주는 사랑이 만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의 결합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귀한 힘을 제공한다.

## IV. 결론

### A.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현대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의 통합 모델을 제시한다.

“가정교회라고 하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말한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당시의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익산우리교회는 이 가정교회를 통해 목장 모임에서의 깊은 삶의 나눔과 5단계로 구성된 체계적인 삶 공부 양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가정교회는 성도 간의 인격적 교제를 회복시키며 예배의 관람객을 능동적인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해피데이 전도는 관계 중심의 맞춤형 전도 시스템으로, 특정일을 축제로 정하고 8주간의 집중적인 사역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전 성도의 사역 동력화와 과학적인 단계별 접촉 전략을 통해 불신자 전도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교회가 관계의 깊이를 담당하고, 해피데이가 전도의 넓이를 확장하는 상호보완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익산우리교회는 현재 11개의 목장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섬김과 해외 선교사

---

<sup>32</sup>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39.

후원을 목장 단위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평신도 리더인 목자와 목녀가 목양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교회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해피데이 기간 중 시행되는 릴레이 금식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공동체 내부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넘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영혼 구원과 제자 재생산에 집중하게 한다. 가정교회의 일상적인 섬김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유입된 새 가족이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된다. 삶 공부 5단계(확신, 생명, 새로운, 경건, 하나님을 경험)는 성도들의 신앙 기초를 다지고 영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반이다. 연구 결과, 두 사역의 결합은 새 가족 정착률의 비약적 향상과 성도들의 영적 야성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익산우리교회의 사례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역할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8주간의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교회 전체의 체질을 전도 지향적으로 개편한다. 가정교회 목장은 해피데이 전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적 공허함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돕는다. 또한 목장별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구조는 성도들의 선교 의식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결국 이 모델은 현대 교회가 직면한 공동체성의 부재와 전도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천적 대안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익산우리교회의 실질적인 사역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부흥 모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B. 연구 결론

가정교회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의 결합은 현대 목회의 위기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적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해법이다.

첫째, 가정교회는 성도들을 단순한 종교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사역 주체로 변화시켜 교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한다. 가정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목장 모임은 현대인의 고독을 치유하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체계적인 매뉴얼을 통해 전도를 일상의 문화이자 축제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철저한 영적 준비와 감동 중심의 섬김이 결합된 8주 프로세스는 불신자 전도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꾼다.

셋째, 두 사역의 결합은 '전도-양육-정착-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공동체 내에 완성한다. 해피데이를 통해 초대된 영혼이 가정교회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호받으며 제자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다.

익산우리교회의 사역 사례는 평신도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신뢰할 때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함을 입증한다. 전통적인 목회자 1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성경적 원형 교회가 구현된다. 또한 5단계 삶 공부를 통한 단계적 교육은 성도들의 지성,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영적 훈련의 핵심이다.

지속 가능한 부흥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대형 행사가 아닌, 관계 중심의 선교적 삶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 체질화되어야 한다. 가정교회의 깊은 영성과 해피데이

전도가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된다. 해피데이 사역 진행위원들의 헌신과 목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는 교회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가장 견고한 영적 기둥들이다. 사역의 위임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된다. 익산우리교회는 매월 진행되는 목장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공동체의 영적 온도와 연합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가정교회의 선교적 구조는 개별 교회의 성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 전체의 확장을 지향하는 공적 교회의 사명을 완수한다. 이러한 부흥 모델은 인위적인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성도들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 전도의 야성을 깨우고, 가정교회를 통해 목양의 섬세함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통합 모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생존을 넘어 질적, 양적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두 날개 사역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어떤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목회 전략이 교회의 본질적 가치와 만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다.

## 참고문헌

## 한글서적

- 김한옥.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진행위원』. 안양: 해피데이시스템, 2007.
- 박영철. 『제자삼는 신약교회』.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 이재철. 『사명자반』. 서울: 홍성사, 2005.
-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 서울: 두란노, 2024.
- .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 서울: 요단, 2009.
- .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다』. 서울: 두란노, 2015.
- . 『교회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요단, 2015.
- .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 . 『목자의 마음』. 서울: 두란노, 2020.
- . 『생명의 삶』. 서울: 두란노, 2024.

## 번역서적

- 심슨, 볼프강.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 박영철 역. 서울: 서로사랑, 2003.
- 쿨만, 로버트 E. 『주님의 전도 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말씀사, 2010.
- 포스터, 리차드.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류형기 역. 서울: 보이스사, 1990.
- 워렌, 릭.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준 역. 서울: 디모데, 2003.

## 논문

김순성. “가정교회 소그룹 구조와 기능의 실천신학적 의의.” 『복음과 실천신학』  
16 (2008), 268-275.

## V I T A

## PERSONAL DATA

Full Name: Seungjea Shin

Place and Date of Birth: Jinju City,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Korea, September 15, 1982

Parent`s Names: Shin Jin-woo and Jung Jung-sook

##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Collegiate: Hanil Jangshin University 726-15 Waemok-ro, Sanggwan-myeon, Wanju-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b>BA</b>	Feb. 16 2007
Graduate: Jangshin University, Seoul 145, Gyeongang-ro, Gw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M.Div.</b>	Feb y. 15 2016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eungjea Shin

March 18, 2026